

# 전남대, '공감형 AI 연구' 국제무대 연속 성과

### 가상현실·인공지능·심리학 결합 연구 국제대회 발표 시용합대학, 표정·음성·제스처로 감정·의사결정 영향

전남대학교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 형성과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감형 AI' 연구로 국제무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AI융합대학의 '공감형 AI' 연구가 IEEE ISMAR 2025, ACM VRST 2025, ACM CHI 2026 등 컴퓨터공학 분야 최상위(S급) 국제학술

대회에 연구가 잇따라 채택되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공지능융합학과 김승원·김수형·양형정 교수와 심리학과 신지는 교수로 구성된 융합 연구팀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심리학을 결합한 4편의 연구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가상 에이전트의 얼굴 표정, 음성, 제스처를 AI로 생성하고 사용



정재준 서가연 강세이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서 표현과 설득, 정서 조절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적 동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재준 학생은 감정 이분과 AI를 결합해 아바타의 얼굴 표정을 정밀 구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

는 IEEE ISMAR 2025에서 발표됐다.

서가연 학생은 가상 에이전트의 발화 제스처 생성과 그 표현 방식이 사용자 감정 반응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ACM VRST 2025에 채택됐다.

또 강세이 학생은 정서 조절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외형과 음성 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과제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선호되는 지원 방식이 달라짐을 밝혀, 상황 맞춤형 상호작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IEEE ISMAR 2025와 ACM CHI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University of Adelaide 공감컴퓨팅연구소의 Gun A. Lee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국제 협력의 수준을 높였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사업, 정보통신기획

평가원(IITP)의 인재양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전남대 공감컴퓨팅연구소는 원거리 환경에서도 정보뿐 아니라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인간-에이전트 상호작용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공감 수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AI 기반 '공감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Engineerin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는 공감의 '인식·형성·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연구 흐름을 확장한 사례로,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민수 기자 joinsu@

## 동부경찰, 수사상황실 개소...선거사범 단속 돌입

광주 동부경찰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및 공직자의 불법선거 개입 등은 물론,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첩보 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상황실

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김중호 광주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 남부소방은 최근 소화약제와 공기를 섞어 거품을 만들어 불을 끄는 '카프차'를 활용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 남부소방서

## 남부소방, 카프차 활용 화재진압 훈련

광주 남부소방은 최근 소화약제와 공기를 섞어 거품을 만들어 불을 끄는 '카프차'를 활용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대원들은 카프차의 거품 분사 방식과 화재 유형별 대응 방법을 익혔다.

특히 카프차는 기존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해 약 4~8배 높은 소화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물 사용량이 적어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송성훈 광주 남부소방서장은 "카프차 진압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대원들은 카프차의 거품 분사 방식과 화재 유형별 대응 방법을 익혔다. 특히 카프차는 기존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해 약 4~8배 높은 소화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물 사용량이 적어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환경공단, AI 기반 하수처리 공정 고도화

### (주)AIEY와 업무협약... 총인처리 공정 약품 자동제어 실증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19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 향상과 스마트 환경기술 도입을 위해 (주)AIEY와 산·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하수처리시설 총인(T-P) 처리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약품 자동제어 기술을 적용해 약품 투입을 최적화하고 공정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

동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하수처리 공정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약품 투입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기술 적용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결과를 공유해 하수처리 분야의 스마트 운영 모델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정철원 담양군수(왼쪽)와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이 농산어촌 AI·디지털 문해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

## 담양군-광주과학관, AI·디지털 문해력 향상 협약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소외연실에서 국립광주과학관과 농산어촌 AI·디지털 문해력 제고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교육 및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 찾아가는 과학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산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과학문

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이 농촌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광주과학관과 협력해 군민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은 19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 향상과 스마트 환경기술 도입을 위해 (주)AIEY와 산·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목포시의사회, 치매환자 위치확인 장치 지원

### 치매안심센터에 500만원 상당 배회감지기 전달

목포시의사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기념식에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약 500만원 상당)를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에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보건소장, 하당보건지소장, 치매보건팀 등 시 관계자와 목포시의사회 회원, 외부 인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약 500만원 상당)를 치매안심센터에 기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는 배회감지기 지원과 배회인식포 보급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목포=이희진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 및 기념식에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약 500만원 상당)를 치매안심센터에 기부했다. 사진제공=목포시

## 게시판

**알림** ▲일기정량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2월 2일)

48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60년생 실효적인 재물을 하는 이가 있다. 72년생 입문에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84년생 재물 생기고 모든 일에도 좋은 운. 96년생 금전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귀하의 처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63년생 넘치는 것을 버려야 이득이 어렵다. 75년생 부동산 거래 자신감 갖고 행동하라. 87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이다. 99년생 좋은 일에는 마가 끼니 주의하라.

54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78년생 임시방편적 이어서는 안 된다. 90년생 데이트가 성사될 것이다.

57년생 화술이 뛰어나 주변에 사람이 많다. 69년생 서두르면 남매 보니 주의하라. 81년생 가족으로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된다. 93년생 이성에 사기 당하거나 속을 수 있다.

49년생 한 발 앞보하는 미덕을 보여라. 61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73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85년생 그것은 해결될 것이니 근심 말라. 97년생 모든 사람이 귀하의 친구가 될 것이다.

52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64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 말조심 하라. 88년생 연인의 말에 상처를 입는 운.

55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한다. 67년생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79년생 날씨가 확인해보아 할 때가 됐다. 91년생 이익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8년생 가까운 사람과 교제가 끊길 우려가 있다. 70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린다. 82년생 지인에게 배신 당할 수 있으니 믿지마라. 94년생 여유 있는 자세로 알뜰 데이트하는 날.



강준수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사고 우려 있으니 나들이를 삼가라. 62년생 목욕치에 미치지 못해 아쉬워한다. 74년생 주변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운. 86년생 아랫사람이 모양을 갖춰야 한다. 98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53년생 작은 현상이면 대변하게 넘겨라. 65년생 주변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려라. 77년생 사업을 점검하는 시기. 89년생 명맥만 유지되니 너무 앞서가지 마라.

56년생 추진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68년생 새로운 제안으로 보람 있는 하루. 8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92년생 인관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

59년생 경험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라. 71년생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밀고 나가라. 83년생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95년생 집착하지 마라.